충남기계공고 동문회보(월간)

총동문회 지표

❖ 참여하는 동문회
❖ 협력하는 동문회
❖ 모교돕는 동문회

설송소식

2020년 10월 제248호 http://cnmhs.net

PENSION & RESORT MIRVILL
자연과 함께하는 휴양형 힐링타운
미르빌 펜션&리조트
예약실 064-792-2918 모교동문 할인
대표 조 성 민(16회) 010-5402-313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846번지

창간 : 1999년 3월 31일 발행인 : 박대용 편집인 : 이우정 인쇄인 : 한흥교 사무처 : (042)252-5656 팩스 : (042)584-5658 E-mail:2525656@hanmail.net

"충남기계공고 교육환경 죽이는 34층 아파트 건설이 웬말이냐!"

동문들 강력하게 반대 대전시교육청 항의방문, 총력 반대투쟁 나서
"700세대 적합한데 장사속으로 1766세대 계획 어처구니없다"

박대용 총동문회장이 설동호 교육감과 대화하고 있다.

충기 동문들이 설동호 교육감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충남기계공고 교육가족들이 뿔났다. 학교 뒤편과 인접한 보문산 전경이 바라보이는 동내에 34층 초고층의 아파트가 교육환경을 도외시한 채 추진하고 있어 총동문회와 학부모 등 충기교육가족들이 「문화동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2면, 4면>

총동문회는 사안이 시급하다고 여기고 코로나사태임에도 긴급하게 제86차 총동문이사회를 개최하고 강력한 반대투쟁을 선언했다.

동문들은 한결같이 "아무리 장사속이라고 해도 학교보다 위치가 높은 지역에 초고층아파트 1766세대를 건설한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일로 분개한다"며 "특히 전문 용역기관에서 교육환경평가 학교일조의 "교육환경평가 학교 일조에 의한 기존 침해지역 중 사업이후 감소한 일조량을 사업이전과 동일하게 확보하기 위해선 총 1,766세대(100%) 중 1,066세대(60.3%, -1,066세대)의 저감이 필요함"이라고 제시(학교 교육환경 일조권 피해를 받지 않도록 700세대 이하의 건축함이 타당함)한 조항을 준수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총동문회는 충기 가족들의 의견을 모아 10월 7일자로 대전시교육청에 '교육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문화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반대' 민원을 박대용 총동문회장 외 19명의 연명으로 제출했다. 총동문회는 또한 8일 오후 박대용 총동문회장과 총동문회고문, 자문위원장, 이사를 비롯해 이종호 대전시의원(13회)이 대전시교육청을 항의 방문하여 설동호 교육감에게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대전시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당부했다.

만약에 현행 계획대로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질 경우 충남기계공고 후배들의 학습 환경은 심각한 피해를 본다. 34층의 고층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평균일조 시간이 1시간 6분 이상 감소되는데, 계절별 최저조건인 동지에는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교실과 운동장 등 학교 전체가 일조 피해를 보아 교실이나 운동장 등이 고층건물로 가려진다. 이럴 경우 동절기 눈·비로 인한 결빙으로 체육활동 불가와 과다한 난방비 증가로 학교의 재정적 피해가 심각할 전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환경평가용역에서 나타났듯이 일조량을 사업이전과 동일하게 확보하기 위해선 총 1,766세대(100%) 중1,066세대(60.3%, -1,066세대)의 저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합하다. 현재의 상황에서 학교가 일조권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700세대 이하의 건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교통량 급속 증가로 인한 소음 등 교육환경 침해도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학교와 접한 도로의 가감차선을 고려하지 아니하여 부출입구 설치로 입주민(1,766세대) 및 기타 차량 등 증가로 인한 소음피해로 수업, 실습, 체육 등에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학교 경계에 방음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행 계획은 학교와 접한 기존 2차선의 골목 도로의 확장 또는 완화 차선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기존 도로를 이용한 입주민(1,766세대)과 기타 차량 등의 교통 혼잡으로 학생 등하교 시 교통사고도 우려된다.

따라서 완화차선 확보와 보행자 안전 난간대 등 교통 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정비사업 이후 학교 체육 및 각종 행사 등 소음 발생에 대한 입주민들이 학교와 교육청에 소음방지 요구 역민원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재정사업 이전에 학교경계 방음시설 등 대책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34층 고층아파트 건립으로 위압감과 보문산, 식장산 스카이라인 등 경관 및 조망권 침해 등 교육환경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바라본 보문산 등 전면 경관 및 조망권이 피해 받지 않도록 저층 아파트 건립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전시교육청을 방문한 동문들은 "시교육청 담당자들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지 말고 학교를 대변하여 백년대계의 의식을 갖고 아파트공사에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대전시교육청은 10월 20일(화) 오후 2시에 열린 교육환경평가 심의결과 통보서를 총동문회에 보내왔다. 심의결과 '보류'로 일조권 추가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대전시교육청 교육환경평가 심의에서는 문화동8구역주택재개발조합 측에 '교육환경보호를 위한 권고사항'을 보내기로 의결했다. 그 내용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일조권 추가 확보가 필요하기에 이에 대한 추가확보를 요청함. 외곽에 위치하고 학교에 영향을 미치는 동을 중심으로 경관 및 교육환경(일조권)을 고려하여 층수를 하향 조정하고,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위원회 허가층수를 고려하여 일부 주동에 대해 최대한 층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경미한 변경(층수, 층고)을 통하여 주변 학교의 일조권을 최대한 확보할 것(도시계획위원회, 경관위원회 재심의를 하지 않는 경미한 변경). 층수 조정에 대해서는 대전시청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본관동, 운동장 등의 일조권 확보를 위한 추가 노력 필요. -이해관계기관인 학교와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친 후 협의결과를 반영한 개선안 제출"이다.

34층 초고층 아파트 조감도

이에 대해 충기 3만3만여 동문들과 학부모 등 충기가족들은 "만약 이와 같은 요구사항이 개선되지 않은 채 아파트신축을 진행할 경우 강력하게 반대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천명했다. 충기언론인회 소속 동문 언론인들도 긴급 모임을 갖고 "좌시하지 않겠다"고 피력했다.

-신 도 성 편집위원-

충기동문골프팀, SBS고교동창골프 통합 4강 진출 〈관련기사 2,3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문화동8구역 주택재개발 강력히 반대한다"

충기총동문회 제86차 긴급이사회 갖고 성명서 추인, 대비책 모색

충기총동문회 제86차 이사회가 10월 6일 저녁 모교 총동문회사무실에서 열렸다. 박대용 총동문회장과 총동문회 고문과 자문위원장, 이사 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이사회는 학교주변에 34층 초고층의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섬에도 환경영향 평가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자, 지난 9월 24일 충남기계공고총동문회 3만3천여 동문 이름으로 성명서를 낸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긴급하게 개최됐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모교 총동문회 사무실에서 열린 회의는 사전 사후 소독 등 철저한 방역조치 후에 이루어졌다.

이날 동문들은 '아파트 건설 반대 입장'성명서를 추인하면서 "향후 적당히 야합하여 공사를 진행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하는 한편, 전국의 동문들이 합심하여 반대투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교육청에 민원을 넣고 교육감을 항의 방문하는 등의 행동개시에 나서기로 했다.

총동문회이사회에서 추인한 문화동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반대 성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환경 외면한 문화동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반대"

1. 고층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일조권 피해에 대한 학교환경 침해 피해

가. 정비사업 사업시행 이후 정비계획안에 의거 평균일조 확보시간이 1시간 6분 이상 감소에 따른 일조권 피해

나. 정비사업 측의 일조권 기준은 학교 교실 창문(823지점)만을 고려한 산정된 것으로 고층건물(114동, 116동, 117동, 118동, 119동) 건립 후 학교 운동장이나 부지에 고층건물로 가려지는 응달 부분에 대한 동절기 눈·비로인한 결빙 피해에 따른 문제점

다. 정비사업안의 "교육환경평가 학교 일조에 의한 기존 침해지역 중 사업이후 감소한 일조량을 사업이전과 동일하게 확보하기 위해선 총 1,766세 대 (100%) 중 1,066세 대 (60.3%)의 저감이 필요함" 이라고 제시하였으나 이를 수용하지 아니한 문제점

2. 교통량 증가로 인한 학교환경 소음 등 침해 피해

가. 학교와 접한 도로의 가감차선을 고려하지 아니하여 부출입구 설치로 이용하는 입주민(1,766세대) 차량과 기타 차량 통행 증가로 인한 소음 피해

나. 학교와 접한 도로의 확장 또는 완화 차선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기존 2차선 도로를 이용한 입주민(1,766세대)과 기타 차량 통행으로 교통혼잡 및 병목현상 발생

다. 도로(차선, 인도) 확장을 고려하지 아니하여 학생 등 등하교 시의 안전 등 교통사고 우려

라. 정비사업 이후 차량 대폭 증가로 소음공해 및 이산화탄소 발생으로 인한 학생 건강과 정신적 스트레스 피해

충기총동문회 긴급 이사회가 열려 모교에 피해를 주는 아파트 문제를 논의했다.

마. 정비사업 이후 학교 체육대회 등 소음 및 차면시설에 대한 입주민들의 역민원에 대한 보호대책 없음

바. 정비사업 이후 입주민(1,766세대) 차량과 기타 차량의 통행량 대폭 증가로 인한 학교와 접한 도로변(114동, 116동, 117동, 118동, 119동)의 방음시설 등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학교환경 피해

사. 정비사업으로 인한 고밀도 아파트 건립으로 위압감과 교통 및 학교환경 피해에 대한 문제점

2020년 9월 24일

충남기계공고총동문회 3만3천여 동문 일동

– 신 도 성 편집위원 –

"행운을 몰고 오는 이문휘 선수 홀인원 기록, 더도말고 오늘만 같아라"

〈골프화제〉 블루원상주C.C 10월 26일 오전 연습경기 중 동코스7번홀서 쾌거

모교 동문골프팀의 이문휘 선수(27회)가 골퍼로서는 꿈같은 홀인원을 블루원상주C.C에서 10월 26일 오전 모교팀 연습경기 중 동코스 7번홀에서 기록을 세웠다. 이 선수는 이날 오후 강호 배재고와 통합 4강전을 앞두고 컨디션 조절 차원에서 전종현 감독과 허영준 주장, 차서백 선수와 18홀 연습라운딩을 돌았다.

이문휘 선수는 지난 5월 5일 오후에는 블루원상주C.C에서 골프에서 확률이 200만분의 1이라고 하는 좀처럼 하기 힘들은 알바트로스라는 대기록도 달성한 바 있다. 이 선수는 5월 5일 블루원상주C.C에서 모교팀 연습경기 중 서쪽코스 11번 홀에서 기록을 세웠다.

행운의 사나이 이문휘 선수가 홀인원한 볼을 들고 있다

이문휘 선수는 10월 26일 오전 연습경기 중 동코스 7번홀(파 쓰리)에서 7번아이언으로 행운의 홀인원을 기록했다.

이에따라 홀인원인증서를 받았고 보험회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물품 구입비를 받게 됐다. 이 선수는 오전에 행운의 기록을 세우고도 흥분하지 않고 배재고와의 통합 8강전 오후 경기에서 쌀쌀한 날씨 속에 야간경기까지 펼쳤지만 마지막 9번 홀에서 허영준 주장과 호흡을 맞추어 승리를 이끌었다.

잇따라 행운을 잡은 이문휘 선수는 "동문들의 성원을 생각하면서 올해 대회에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끝까지 집중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 도 성 편집위원–

행운의 7번홀에 절

인증서 받고 기념촬영

우승 가자!!

모교팀, 세 번째 우승 노리는 강호 배재고 꺾고 통합4강 진출

2020키움증권배SBS고교동창골프최강전 10월 26일 동문 성원 힘입어 역전승

충남기계공고총동문회 골프팀이 경북 상주블루원CC에서 10월 26일(월요일) 열린 2020 키움증권배 SBS고교동창골프최강전 통합 8강전에서 역대 두 번이나 우승을 차지한 강호 서울 배재고에게 역전승을 거두고 통합4강에 진출했다.

모교팀은 10월 26일 오후 3시 40분부터 벌어진 통합 8강전에서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힌 배재고와 경기에서 쌀쌀한 날씨와 야간경기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정신을 집중하여 승리를 이끌어내며 승전보를 전했다. 모교팀은 전종현 감독(12회)의 차분한 지휘아래 똘똘 뭉쳐 지난해부터 맹활약한 주장 허영준(25회)선수의 결정적인 활약과 '행운의 사나이' 이문휘(27회) 선수의 선전에다가 올해 새로 합류한 차서백(전 이름 차기천,22회) 선수가 나름대로 몫을 다해 승리를 일구어냈다.

이날 통합8강전 경기는 1번홀에서 승리하며 기분 좋게 출발했다. 하지만 양 팀은 팽팽한 실력을 발휘하며 2번홀과 3번홀에서 비긴 후 4번홀에서 배재고가 이겨 무승부로 후반부로 넘어갔다. 금세 어두어진 골프장에는 야간 조명이 켜지고 5번홀과 6번홀을 비기며 승패의 향방이 오리무중이었다. 7번홀에서 모교팀은 패해 비상이 걸렸다.

하지만 "이길 수 있다" 는 마인드 컨트롤로 정신을 가다듬은 후 8번홀에서 허영준, 차서백 선수가 승리를 가져왔고, 마지막 9번홀에서 주장 허영준과 이문휘 선수가 침착하게 경기를 펼쳐 승리의 여신을 모셔왔다. 이날 경기장에는 3시간가량 밖에서 기다리며 승리를 기원하는 동문들이 있었다. 멀리 9번홀 티샷 지점에 양팀 선수들이 등장하자 동문들은 숨을 죽이며 경기를 지켜보았다. 순간 상대 배재고 선수가 친 볼이 나무에 부딪치면서 상황이 우리 팀에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지켜보던 임정규(12회) 정찬목(12회) 최동준(21회) 동문 등과 지인들은 승리의 감격을 같이 맛보았다. 통합4강에 진출한 모교팀은 장학금 500만원을 확보했다.

모교팀은 11월 3일 오후 3시30분에 김천성의고와 9홀에 걸쳐 준결승전을 갖는다. 결승전은 11월 17일 오후 1시에 18홀에서 열린다. 10월 26일 통합8강전 경기는 녹화되어 12월15일 화요일 밤 10시30분 SBS 골프채널을 통해 방영된다.

통합8강 승리후 9번홀에서 환호하고 있다.

모교 동문골프팀이 선전을 펼치자 동문들의 후원이 잇따르고 있다.

박대용 총동문회장은 한흥교 사무총장과 10월 25일 일요일 상주블루원CC를 방문하여 연습 중인 선수단과 점심을 같이하고 총동문회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임정규 12회동문회장은 정찬목 동문과 함께 10월 26일 점심을 같이하고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최동준 21회동문회장은 경기 후 골프장 인근 교향산천식당에서 저녁식사를 마련하고 후원금 200만원을 선수단에게 건넸다.

전종현 감독은 "바쁘신데도 동문 선후배들이 성원해주어 감사드린다"며 "최선을 다해 모교의 명예를 드높이겠다"고 말했다.

<골프 후원 내역> 10월 28일까지 ▲설송회 200만원 ▲김병무 설송회장 100만원 ▲12회동문회 100만원 ▲임정규 12회 동문회장 50만원 ▲충남서천군민회 100만원 ▲염태대(8회) 백제cc 연습라운딩 120만원 상당 지원 ▲총동문회 100만원 ▲최동준 21회동문회장 200만원 ▲백두현(13회) 200만원

– 신 도 성 편집위원 –

경기 시작 전 인터뷰

시작 전 심판 주의

1번홀 티샷 후 전진

9번홀 상대팀 두번째 샷

승리 직후 수고했어요

캐디도 승리 한몫

응원 온 동문들과 함께

박대용 총동문회장 후원금 전달

임정규 12회동문회장 후원금 전달

최동준 21회동문회장 후원금 전달

고교동창 골프의 역사

고향산천 식당 만찬에서 파이팅

“25회 졸업30주년기념행사 11월 21일(토요일) 저녁 개최한다”

유경상 위원장 등 추진위원회 준비 분주, “코로나상황에 맞게 행사 준비”

25회 동문들이 졸업30주년기념행사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사진은 발대식 모습

25회동문회(회장 유경상)는 전통행사인 졸업30주년기념행사를 11월 21일(토요일) 저녁 6시 유성 계룡스파텔 지하1층 백두홀에서 개최한다.

25회동문회는 지난 6월 6일 유성 띠울석갈비식당에서 졸업30주년 기념행사 발대식을 가진 이후 추진위원 모임을 지속적으로 갖고 상호 연락체계를 유지하며 동문 친구들의 단합과 협조를 이끌어내고 있다.

유경상 25회동문회장 겸 졸업30주년기념행사추진위원장은 “25회 졸업30주년기념행사는 일생에 한번 있는 뜻 깊은 행사로 코로나로 어수선하지만 선후배의 격려와 동기 친구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11월 셋째 주 토요일에 개최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유경상 졸업30주년기념행사추진위원장은 “어려운 시기임에도 모교의 전통 행사를 잇기 위해 신경을 써주신 총동문회와 선배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지천명의 나이에 인생을 돌아보고 25회 친구들이 은사님을 모시고 30년 만에 만나 회포를 푸는 행사에 25회 친구들이 많이 동참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 연락처=신준현 홍보국장
(전화 010-9292-5410)

★ 25회 졸업30주년기념행사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유경상
▲사무국장 홍준용
▲재무국장 김영도
▲홍보국장 신준현
▲추진위원 : 안중용, 이계춘, 김광석, 김인문, 조종현
▲감사 안승락

<후원계좌 농협 356-1418-6109-73 김영도(재무국장)>

※후원 현황 (10월 8일 현재)
▲유경상 추진위원장 500만원
▲홍준용 사무국장 등 집행부 400만원
▲최동준 21회 동문 30만원
▲최승호 23회 동문 50만원
▲최병무 23회 동문 50만원.

– 신 도 성 편집위원 –

“모교 주변 재개발로 초고층 아파트 들어설 경우 좌시 않겠다”

충기언론인회 동문들 유사시 대대적으로 기사 보도 의견 모아

충기언론인회(회장 이우정)는 9월 25일 저녁 서구 관저등 양화리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그동안의 회포를 풀었다. 이우정 회장(총동문회 고문)은 “코로나사태로 어수선한 가운데에서도 우리 충기언론인회 동문들이 일선 현장에서 열심히 취재하여 보도해준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런 시기에는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충기언론인회 동문들은 이날 코로나로 인해 총동문체육대회도 내년으로 연기되는 등 모교 총동문회 활동이 크게 위축된 만큼 발전기금으로 50만원을 내기로 결의했다.

또한 모교 주변인 문화8구역재개발 사업으로 초고층 아파트가 건립할 계획이어서 모교 교육환경이 크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유사시 기사로 문제점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신도성 편집위원 –

“코로나19 극복위해 힘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황인범 동문, ‘대전의 아들’ 답게 코로나 성금 5000만원 기부

황인범 선수가 러시아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황인범 형 황인호 씨가 대전시청에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다.

모교 출신 축구국가대표 황인범(50회) 동문이 러시아 축구명문 루빈 카잔팀으로 이적 후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10월 5일 오후 2시에 대전시청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5,000만원을 대전광역시에 기탁했다.

대전의 아들임을 자처한 국가대표 미드필더 황인범은 이날 대전시청에서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박용훈 사무처장과 황인범 선수의 형인 황인혁씨가 참석한 가운데 기탁식에서 성금을 전했다, 성금은 사랑의 열매(대전 사회복지공동 모금회)에 기탁돼 노약자 및 저소득층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감염 예방 및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황인범 동문은 대전시티즌(현 대전하나시티즌) 산하 유소년팀(유성중학교-충남기계공고)을 거쳐 2015년 대전시티즌에 입단했다.

2015~2018년까지 K리그 통산 106경기에 출전해 16득점 13도움을 기록했다. 2018년에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에 발탁돼 대한민국의 금메달 획득에 일조했다.

황 동문은 이후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성인 대표팀에 발탁되며 2018년 9월 코스타리카와의 평가전에서 A매치 데뷔전을 가졌다.

친선경기 및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2019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챔피언십’등에 출전하며 A매치에서 23경기 출장 3득점을 기록 중이다.

황 동문은 2019년 1월 미국리그 벤쿠버화이트캡스(MLS)로 이적하며 해외 무대에 대뷔하여 2019년 ~ 2020년까지 40경기에 출장해 3득점 4도움을 기록했다. 올해 지난 8월 러시아 1부 리그 루빈 카잔으로 이적하며 해외 진출 2년 만에 유럽 무대 진입에 성공했다. 루빈 카잔 이적 후, 단 6경기 만에 2득점 4도움을 올리며 전천후 활약으로 팀의 핵심 선수로 성장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황인범 동문은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의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쓰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을 형을 통해 대신 전했다. 황 선수의 고교시절 담임이었던 이재범 동문(8회. 모교 교사로 정년퇴직, 대전과학기술대 겸임교수)은 “인범이는 운동하느라고 바쁜데도 각종 자격증을 따내는 등 성실하고 인성을 갖춘 학생이었다”며 “인범이의 따뜻한 마음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게 전달된다니 흐뭇하다”고 말했다. 황인범 동문의 건승을 기원한다. 황인범 파이팅!

–신 도 성 편집위원–

“코로나 곧 극복 희망, 참고 기다리자”

기성동문회 10월모임 20명 참석 우의 나눠

기성동문회(회장 안주현.10회)는 10월 14일 저녁 기성동 흑석한우촌 식당에서 송주영 총동문회 고문 등 회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랜만에 월례모임을 열었다. 코로나로 인해 지난 3월 이래 모임을 갖지 못하다가 가을을 맞아 대면 모임을 가졌다.

기성동문회는 만 40세 이상으로 기성동 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체를 갖고 있는 동문을 대상으로 회원을 가입시켜 활발한 모임을 벌이고 있다. 기성면 지역은 특히 충기 졸업생이 많은 지역으로 1회 송주영 선배와 송석구 선배를 비롯해 최근까지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안주현 회장은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평범한 일상을 보내지 못하고 갑갑하게 지내셨을 것”이라며 “코로나가 곧 극복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건강에 유의하여 참고 기다리자”고당부했다. 한편 이날 모임에서는 김용협 회원(19회. 대전서구통장협의회장)이 ‘자랑스런 서구인’으로 선정되어 수상한다는 소식을 전하며 박수로 격려했다. 송주영 총동문회 고문은 “코로나로 인해 충기총동문체육대회가 내년으로 연기되는 등 동문회 행사가 크게 위축되어 안타깝다”며 “이런 시기일수록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동문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채홍종 기성동문회 부회장(16회)–

김용협 동문 ‘올해의 자랑스런 서구인’수상

제31회 서구민의 날 기념식 8일 열려

김용협 동문(19회)이 대전 서구에서 선정한 올해의 ‘자랑스런 서구인상’ 환경부문 대상자로 10월 8일 서구청에서 열린 제31회 서구민의 날에 수상했다.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사회 각 분야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해 온 올해의 ‘자랑스런 서구인상’으로 사회봉사 부문 박상근, 생활체육 부문 박정수, 환경 부문 서구 통장협의회 (회장 김용협)를 수상자로 선정했다. 올해로 25번째 “자랑스런 서구인상”은 서구가 해마다 각 분야에서 지역사회와 구정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일을 묵묵히 하는 서구의 참된 일꾼에게 주어지는 서구를 대표하는 영예로운 상이다

환경 부문 서구 통장협의회(회장 김용협)는 서구 23개 동 통장협의회(총 816명)로 구성되어 깨끗하고 쾌적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환경지킴이 활동 및 안전한 서구 만들기 캠페인 등을 지속 실천해왔으며, 올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방역과 정림동 등 수해복구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 실시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기성동문회 동문들은 8일 서구청에서 열린 ‘제31회 서구민의 날’기념식에서 김용협 동문의 수상을 축하하며 꽃다발을 전달했다.

“시드니 올림픽 금메달 김영호 선배 기백 이어받아 맹활약”

모교 펜싱부 제49회 회장배전국남녀종별펜싱선수권대회 단체전 우승

모교 펜싱부는 10월 16일(금)부터 10월 19일(월)까지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우슬체육관에서 개최된 제49회 회장배전국남녀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는 쾌거를 이뤘다.

펜싱부는 2020년 7월부터 개최된 제58회 전국남녀종별펜싱선수권대회 단체전 3위를 시작으로 48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전국남녀중고펜싱선수권대회 단체전 우승, 제32회 한국중고펜싱연맹전국남녀펜싱선수권대회 단체 3위에 이어 이번 제49회 회장배전국남녀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 다시 한번 우승하는 저력을 보이며 전국 최강팀으로써의 위용을 과시했다. 이로써 2020년도 전국펜싱대회 고등부에서 개최된 전 대회 입상이라는 대역사를 쓰고 있다.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전국남녀중고펜싱대회에서 1위를 하였지만 이후 제32회 한국중고펜싱연맹전국펜싱대회에서 우승을 놓친 아쉬움에 훈련 강도를 높이면서 각오를 다지고 출전한 이번 대회에서는 16강전에서 개인전 우수한 성적을 토대로 시드를 배정받아 8강에 진출하였다. 8강전에는 부산체육고등학교를 상대로 45:40으로 무난하게 경기를 하였고, 4강전에서는 2019 전국체전에서 4강 진출에 걸림돌이었던 서울체육고등학교를 상대로 45:35 승리하여 지난 패배를 설욕하였다. 이후 결승전에서는 직전 대회 준결승에서 패배한 불곡고등학교를 상대로 45:40으로 누르고 우승컵을 들어 올리며 위상을 드높였다.

이번 대회 결승전에서 큰 기여를 한 선수는 3학년 학생선수들이었다. 3학년 이후영 선수는 개인전 동메달(3위)을 획득하여 단체전 16강에 시드를 배정받아 체력을 아끼면서 8강 진출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고 3학년 박종우 학생선수는 팀의 주장으로서 위기 때마다 극적인 기량을 보여주면서 팀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전환하고 사기를 올리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또한 1학년 김지찬, 신환규 선수는 팀의 후배들로서 매 라운드 경기에 최선을 다하면서 경기 전략을 훌륭하게 소화하여 안정적인 경기를 이끌었다.

우승 원동력의 뒤편에서는 대전스포츠과학센터의 도움도 크게 기여하였다. 매 경기마다 선수들의 메디컬 체크와 더불어 학생선수들의 컨디션 조절을 위하여 근육 마사지, 근육과 관절 부위 테이핑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줘 학생들이 좋은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게 하였다.

펜싱우승 기념사진 (왼쪽부터 김대식 임재범 교감, 최상윤 이승민 신환규 김지찬 이후영 박종우 선수, 전철구 코치, 황의만 교장)

2020년의 성과가 더욱 값지고 의미 있는 것은 전용 연습실이 없어 일반 학생들과 강당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펜싱부는 특히, 2021년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강당 공사로 인해 훈련공간이 없어 외부에서 훈련해야 하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를 극복하고 이번 대회 우승이라는 타이틀과 전국 최강팀으로 저력을 보여주었다.

황의만 교장은 매번 대회 출전 전후로 교장실에서 선수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불러주며 따듯하게 격려하여 선수들에게 자신감과 할 수 있다는 긍정감을 심어주었다. 또한 모교 출신 전철구 코치가 모교 펜싱부가 정상에 설 수 있도록 선수들과 함께 연습경기도 하면서 선수들의 기량과 인성을 열정적으로 지도하는 공이 크다. 모교 펜싱부는 시드니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영호(24회) 동문의 전통을 이어받아 강팀으로서의 전통을 이어나가는 명문 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찬목 편집위원(12회 . 모교 교사)–

“모교는 공사 중…내년 3월까지 건물 리모델링, 안전에 각별히 유의”

모교는 연일 공사로 어수선하다. 2021년 전국기능경기대회를 대비하여 대전시교육청이 59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모교 노후건물 보강공사가 9월 10일부터 내년 3월 13일까지 벌어진다. 이번 공사는 실습실(5동, 9동) 내진보강 및 수선공사에다가 13동, 18동 5개실, 창고동, 굴뚝을 철거하고 5동·9동 건물 수선(외벽 수선, 창호 교체, 옥상 방수,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화장실 수선 등)과 1동·8동·11동 외부도장을 할 계획이다. 또한 모교의 육교 부근 담장공사가 교육청 예산 2억 6천6백여 만원을 들여 친환경적으로 석회석으로 담장을 쌓고 조경을 아름답게 가꾼다. 이에 따라 현재 모교는 각종 공사로 어수선한 상태에서 학생들의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대강당 건물

정문 담 공사

정문 담 공사

모교 후편 굴뚝 제거

수입 현황

기간 : 2020년 9월 23일 ~ 10월 27일까지
입금계좌번호 : (농협) 351-0214-2218-53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

연회비 및 발전기금

방 1	백운길	500,000	
자 1	송주영	50,000	
전 3	이우정	20,000	
전 3	이종욱	500,000	
전 5	김흥년	100,000	
광 6	권영범	30,000	
전 8	고달수	20,000	
기 8	신도성	200,000	
화 8	이장수	100,000	
전 8	임헌표	50,000	
전 9	김창섭	20,000	
방 9	이대헌	20,000	
광 9	이시훈	20,000	
기 10	오풍균	20,000	
자 11	박순규	200,000	
전 11	오연진	500,000	
화 11	조해완	20,000	
기 12	김대근	50,000	
광 12	송진만	100,000	
방 12	오세구	500,000	
기 12	전교식	100,000	
기 12	정찬목	100,000	
기 13	고영순	60,000	
기 14	김성환	20,000	
기 14	박수범	300,000	
기 14	성현철	30,000	
기 14	송수헌	50,000	
기 14	안병도	100,000	
기 14	이황훈	50,000	
기 14	임화섭	300,000	
전 14	조춘택	20,000	
기 14	한경환	20,000	
전 16	김상호	20,000	
기 16	김석래	20,000	
기 16	김정기	20,000	
기 16	윤석길	40,000	
기 16	이계천	20,000	
기 16	이언구	50,000	
기 16	이재흥	20,000	
전 16	장보환	20,000	
기 16	조성민	1,000,000	
기 17	장세정	50,000	
배 18	오치현	100,000	
기 20	오철안	20,000	
기 21	박원종	20,000	
기 21	황희원	40,000	
기 22	이보윤	100,000	
기 23	강전영	40,000	
기 24	박병희	50,000	
기 33	이재상	20,000	

단체

구연회(9회동문회)	500,000
한밭문화회(10회동문회)	300,000
12회동문회	1,000,000
16회동문회	1,000,000
공사모동문회	500,000
서산태안동문회	500,000
안산동문회	500,000
충언회(충기언론인모임)	500,000
문경화(연락바람)	100,000

회보 광고비

금 18	유병각	50,000
기 18	장영옥	50,000
기 18	장영우	100,000
기 18	박종용	50,000

"코로나 난세에도 동문들 연회비, 발전기금 잇따라"

체육대회 개최 못하지만 십시일반 정신 동참 충기인 저력 발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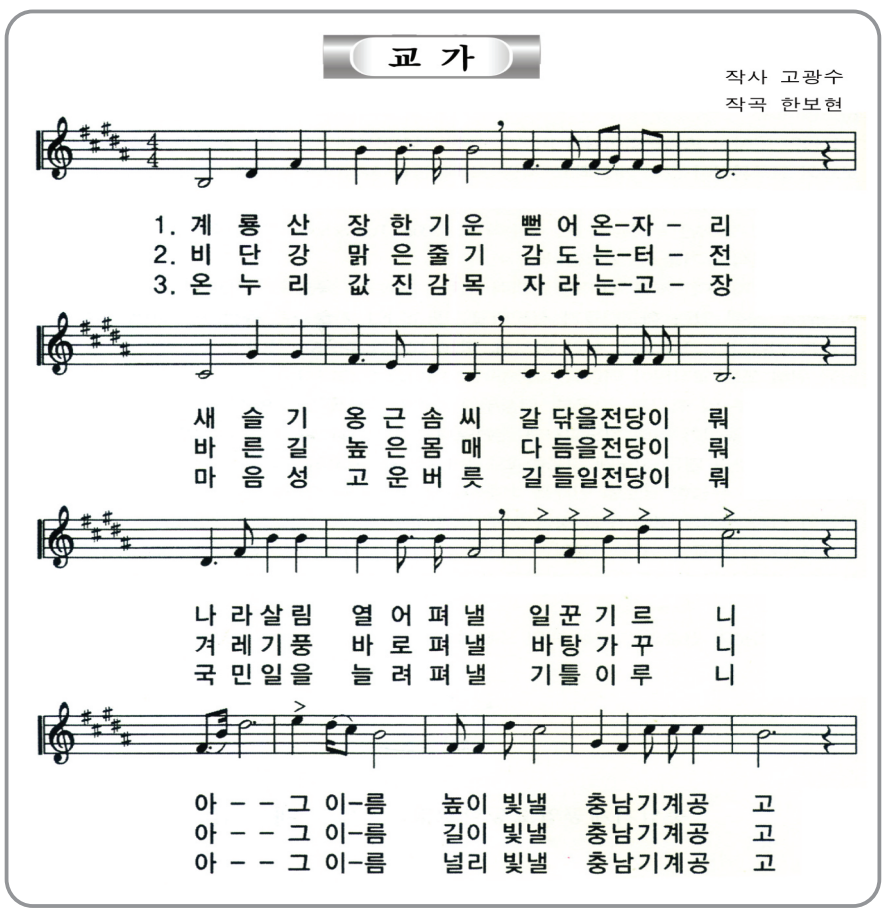
충기는 영원하다. 사진은 올해 1월 55회 졸업식 모습

올해 10월에 열리는 제32회총동문체육대회가 코로나로 인해 개최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총동문회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설송소식 245호(7월호) 기사를 보고 동문들의 호응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9월에 이어 10월에도 전국의 동문들이 발전기금과 연회비를 보내어 충기인의 저력을 발휘하고 있다.

10월에도 1회 선배부터 후배들 중에는 일 년에 한번 내는 2만원 연회비 발전기금을 중복해서 보내 동문회 운영에 힘을 주고 있다.

1회 백운길 총동문회고문은 발전기금 50만원을 보내왔고, 시골에 낙향하여 농사로 소일하는 송주영 총동문회고문은 이미 연회비를 여러 차례 납부했음에도 5만원을 입금했다. 지난 9월에 30만원을 입금한 이우정 고문(3회)은 벌써 10년째 매월 2만원을 자동이체하여 후배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이종욱 동문(3회)과 오연진 동문(11회), 오세구 동문(12회)은 각각 50만원을 보내왔고, 박수범 동문(14회)과 임화섭 동문(14회)은 각각 30만원을 발전기금으로 입금했다. 그 외에도 20만원, 10만원, 5만원, 2만원 등을 어려운 가운데 입금한 동문들이 많아 너무 감사하다.

단체로는 12회동문회(회장 임정규)와 16회동문회(회장 윤학길)가 각각 100만원을 보내왔고, 구연회(9회 동문회) 50만원, 충기언론인회 50만원, 공사모동문회 50만원, 서산태안동문회 50만원, 안산동문회 50만원이 입금됐다.



박대용 총동문회장은 "여러모로 어려울 텐데 발전기금을 보내주어 힘이 난다"며 "충기동문가족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더욱 노력하여 전통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종합정비업
으뜸자동차공업사
자동차검사! 환경심사!
대표 장 영 우 (18회) 010-2304-1500
대전광역시 동구 대성동 276-12번지 (면허시험장)
TEL : (042) 282-1500 FAX : (042) 282-1501 , E-mail : jyu9839@hanmail.net

이름 조가네 갑 하는 오징어

충청지역 동문님들을 체인점 가족으로 모십니다. 기계과(15회) 조현기
명실상부한 한국 최고의 갑오징어 전문 음식점 | 합리적인 가격! 환상적인 맛!
조가네 갑오징어만의 경쟁력
1 본사 OEM 소스 공장에서 직접만든 소스 공급
2 전문적인 주방 기술이 필요없는 시스템
3 유행을 타지않는 독창적인 아이템
4 본사의 가맹사업팀 전문가들의 도움
가맹문의 1800-6084 www.jonlee.co.kr
조가네 갑오징어 대전관평점 ☎042-931-1375

emp (주)이엠피서비스 www.empservice.co.kr
대표 정 구 창 (10회)
H.P 010-5403-8902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13길 25, 에이스하이테크 2차 809호
TEL : 1644-2660, FAX : 02-701-7298
▣공동주택/건물종합관리
▣경비/청소, 정보통신공사
▣면세물류/ 근로자파견

필 엔 텍
FIL & TECH
대표 진 춘 식 (21회)
010-8823-8548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39번길 36
TEL. (042)626-8548 팩스. 626-8549
홈페이지 : www.filntech.com
CLEAN 장비, 공조용 FILTER 및 각종 산업용 FILTER

박 종 용 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박 종 용 (18회)
대전시 서구 둔산2동 1308번지 하이베라스빌딩 3층
(우)302-830 서대전세무서 앞, 제일은행 옆
TEL : 042-471-6400, 6442
FAX : 042-471-6443
핸드폰 : 010-7680-3377
E-mail : pjy4716400@hanmail.net

UMBRO
스포츠의류 umbro
대전 롯데백화점 7층 매장
대표: 김재용(010-4623-5073)
〈김석래(16회 동문) 아들〉

페인트도소매 조색시스템 (3분조색OK) 도 장 공 사
분체, 액체 열처리도장
제비표페인트대연상사
제 일 테 크
유 병 각 (18회)
010-6424-723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289-1
산업용재유통단지18동 135,136호
TEL:(042) 670-7877, 7233
FAX:(042) 670-7876

KIA 기아자동차 남선대리점
"한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는 동문이 되겠습니다."
카마스터 김 희 곤(16회) 동문차량 전담

TEL : (042) 486-0042
H.P : 010-3300-5838
FAX : (042) 525-4878

누리상조
★ 매월 납입금 없는 후불방식 입니다.
◈기존 상조회사보다 저렴합니다.
대표: 나 익 성 (기 13회)
010-4433-04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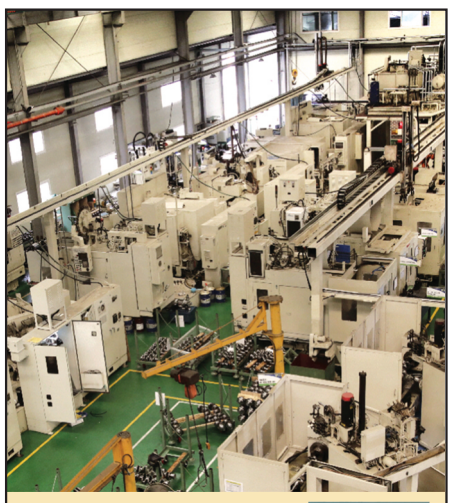
탐라돌구이
윤 여 갑 (10회)

H.P : 010-5454-1262
TEL : 042-823-8888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607-4
♣대형 주차장 완비♣

CROWN 크라운출장뷔페
대표 이희범 (동문협찬업체)
결혼식/각종연회/칵테일파티/기업체행사/운동회 및 각종모임/바베큐/생맥주 파티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 528번지
전화 : (042) 585-5500 휴대폰 : 010-5462-9919

KOHANDS (주)코핸즈 대리점
GSA (주)지에스에이 대리점
에어스타 (주)에어스타 대리점
콤프레샤 주문제작 및 수리
에어 주변기기 일체
한 국 기 계
대표 장 영 옥 (옥빈,玉賓) 18회
cell : 010-5455-8786
콤프레샤전문 콤프나라 www.compnara.com / www.hkmcomp.com
매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60 산업용재유통단지 18동 138호 / 우. 306-754
Tel. 042 · 670 · 8962, 042 · 623 · 8962 / Fax. 042 · 670 · 8963
E-mail : hkmcomp@hanmail.net
공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60 산업용재유통단지 18동 153호, 154호

DAWON (주)다원엘리베이터
DAWON ELEVATOR CO., LTD.
기술이사 안 치 홍 (19회)
TEL. (043) 266-1215 FAX. (043) 266-1217
Mobile. 010-6404-0120 Http://엘리베이터제작,한국
본사: 충북 청주시 흥덕구 덕암로 24번길 12-11 하나빌딩
사회적책임 경영품질부문 대상 조달청등록기업, ISO인증기업
승객용, 화물용, 리프트 제작설치, 리-모델링(교체공사)전문기업


(주)세진크랭크
30년간 오직 Crankshaft가공에 매진해온 국내 최고의 Crankshaft가공 전문기업

대표이사 전종현(12회)

"부모님같이 정성 다해 모시겠습니다"
가화노인복지센터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683번15(1층)
☎ 042)638-8828
핸드폰 010-8805-8051
원장: 안도경(이상돈 16회 동문 부인)
중풍, 치매, 뇌졸중 등 거동불편 어르신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구강관리

미르마르커피
대표 조 성 민 (16회)
Hp 010.5402.3132
강릉 안목커피거리
강원도 강릉시 창해로 14번길 22
T e l : 033-653-3130
FAX : 033-653-3132
E-mail : mirmarcoffee@naver.com

금산 왕대양꼬치 GEUMSAN WANG DAE LAMB

대표
권 경 중 (26회)
[32736] 충남 금산군 금산읍 비호로 16
Mobile : 010-3588-4135
예약문의 : 041) 751-2299

세 무 법 인 YEE JEONG 이정
稅務法人 以 楨 유성지점
대표세무사
마 수 용 (18회) 010-4506-5089
[국세청, 북대전 · 대전세무서, 조세심판원 근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875 비에스타워 506호 (충남대 서문앞)
Tel 042-719-8898 Fax 042-719-8810
신고대리 기장대리 불복청구 세무조사 양도 상속 증여

*동문회 운영에 협찬 광고가 큰 힘이 됩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동문 업체의 광고를 게재합니다. 매월 1만부 발행하는 동문회보는 해외를 비롯하여 전국 곳곳에 발송되어 광고 효과가 좋습니다.
♠총동문회사무실 대표전화 ☎252-5656
입금계좌번호 : (농협) 351-0214-2218-53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

더 많은 제품을 보고 싶으시면 www.yjds.kr에서 구경하세요.

디자인부터 제작, 납품을 한번에~
예진커뮤니케이션은
최첨단 설비시설과 다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디자인, 제작, 납품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컬러박스 제작 전문업체 입니다.
From designing to production
(주)예진커뮤니케이션
제작문의 031 957-2829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방촌로955번길 34-63
팀장 우 상 철(26회) 010-4727-2060